

《新撰字鏡》이체자 유형 연구*

— 火部와 灬部를 중심으로

김영경**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신찬자경》과 속자와의 관계
 - 1. 속자의 일본 유입 경로
 - 2. 《신찬자경》 자형의 定位
 - III. 《신찬자경》이체자의 유형분석
 - 1. 필획 혹은 부건의 생략
 - 2. 부건 혹은 필획의 번이
 - 3. 비슷한 자형으로의 교체
 - 4. 자형구조 변화
 - 5. 필획 혹은 부건의 증획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新撰字鏡》은 平安 시대 일본의 승려 昌住가 《玄應音義》, 《玉篇》, 《切韻》 등과 같은 중국의 문헌을 참고하여 901년에 완성한 사서이다. 일본에서는 이 책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며, 특히 《신찬자경》의 저술과정에 저본이 되었던 문헌을 밝히고, 《신찬자경》이 그 문헌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였는지를 하나하나 탐색하고 정리하는 연구가 잘 되어있다. 그 중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신찬자경》이 唐代의 字樣書인 《正明要錄》을 어떻게 참고하였는지를 밝힌 西原一幸 선생의 《新撰字鏡》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A00040)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학술연구교수

本文中における《正明要録》の利用について》논문이었다. 《정명요록》은 당대에 良知本이 편찬한 자양서이다. 이 책은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정자와 속자를 널리 수용하여 당시의 문자사용 양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초의 자양서로 그 가치가 더 높다. 《신찬자경》은 저술 과정에서 이 《정명요록》을 참고하여 올바른 자형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자형 상 유사한 점이 아주 많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신찬자경》과 중국 속자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그 연원관계를 탐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창주가 《신찬자경》을 저술하던 당시의 일본의 문자 환경의 구체적 양상과 그것이 《신찬자경》의 저술에 어떠한 자양분이 되었는지 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에 속자가 전해지게 된 경로를 탐색하고, 중국의 속자가 일본의 한자 발전에 끼친 구체적 영향관계를 알아본 후 중국 속자와의 자형 비교를 통하여 그것이 《신찬자경》의 자형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신찬자경》과 중국 속자와의 관계

본 장에서는 일본에 한자가 처음 전해지게 된 계기와 중국과의 직접 왕래를 통한 한자의 대량 유입 후 속자의 유행양상과 그것이 일본의 문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공식적으로 되짚어 보고 《신찬자경》 자형이 가지고 있는 정위를 세우도록 하겠다.

1. 속자의 일본 유입 경로

1) 한자의 첫 전래와 대량 유입

중국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꽃 피웠다. 그 중 가장 뛰어난 문명의 정수가 바로 문

자이다. 중국은 문자의 발명 덕분에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다시 나라 체제의 정비와 대국화로 이어져 동아시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한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추어 주위 나라를 압도하였다. 강력한 국가체제는 다시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주위 나라가 중국의 문화를 본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의 불교와 유교 관련 문헌의 전파가 주위 나라의 정치체제 정비와 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하겠다. 한국은 중국과 예부터 역사적으로 교류가 빈번하였으므로 漢 四郡 시대에 이미 한자가 들어왔으며, 삼국시대에 들어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지자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근거로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유학생들을 중국에 보내어 유교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한자는 문화의 매개체로서가 아니라 문자 자체로서도 우리말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리적으로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쉽지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하지만 고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바로 나라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일본에서도 선진문물에 대한 갈구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륙과의 접촉은 초기에는 주로 백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일본에 처음으로 한자를 전한 것도 백제의 아직기, 왕인 등이었으며, 특히 이들은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하여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가 應神天皇 15년(366년), 16년(367년) 무렵이었으므로, 일본에 처음으로 한자가 전래되어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4세기 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¹⁾ 이처럼 초기의 한자유입은 백제를 통한 문헌의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중국과의 직접 교류보다는 백제를 통한 간접 교류가 위주가 되었다. 그러나 수당 시기에 들어 그 양상이 달라졌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를 통한 교류 외에도 직접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중국과 왕래하였다. 이른바 遣隋使와 遣唐使가 바로 이것이다. 이로부터 隋唐 이대는 물론 그 후대에도 이어진 일본과 중국의 직접 교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짧은 세월 천하를 호령하다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대에도 600, 607, 608, 614년 네 차례에 걸쳐 견수사를 파견했고, 2백여 년 간 이어진 당대에는 19차례나 파견하여 실제 교류가 이루어진 것만 15차례 달한다고 한다. 견당사는 당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인재들을 이끌고 당에

1) 김경조, 〈漢字문화권 국가의 漢字수용 양태에 관한 비교연구〉, 《신라학연구》 1999년 3월, 24쪽 참조.

들어왔으며, 그 유학생들은 국자감이나 태학 같은 당의 관방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 황제들은 간혹 이들에게 수많은 중국의 서적들을 상으로 내리기도 했고 이들이 이 서적들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감에 따라 중국의 서적들이 대량으로 유포되기도 했다. 그 중 일본의 저명한 학자 吉備眞備는 716년에 제7차 견당사를 따라 당에 들어와 17년간이나 당에 머물면서 儒家의 五經, 三史, 明法, 天文, 曆學, 兵法, 建築 등 각종 실용적인 학문에 정진하였고, 200권에 달하는 서적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한다.²⁾ 이러한 일반 유학생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바로 學僧이었는데, 582년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진 이래 불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중앙집권의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장려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절들이 창건되었고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들이 당과의 교류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들 학생은 구도가 목적이었으므로 스승을 찾고 성지를 둘러보는 외에도 불경이나 탕화를 베끼거나 사들여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 외에도 당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유학의 경전이나 사서들도 대량으로 사서 들어왔다. 일본 학자 池田溫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 들어온 중국의 전적은 이미 1800여 부 18000권에 이르렀으며 특히 수당시기의 經史子集 각부의 전적이 없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 수량은 대략 수당시대 궁정 장서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³⁾

일본인뿐만 아니라 당의 승려가 일본으로 건너가 율종을 전파하고 일본 불교의 발전을 촉진한 예도 있었다. 당의 승려 鑿眞은 754년 대량의 경전과 불상, 서적 등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중국의 건축, 회화, 서법, 의학지식을 일본에 보급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감진이 일본에 건너갈 때 가져간 물품은 佛像 8종, 佛具 7종, 佛經 34종, 字帖 3종 등이었다고 한다.⁴⁾

유학생들에 의한 전적의 유입 외에도 당대에는 나라간의 경제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의 비단, 의복, 도자기, 철기, 지필묵, 서적 등은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그 중에서 서적은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대량으로 일본에 전해졌다. 수당 이대에 걸친 당과 일본의 교역은 대단히 성행을 이루었으며 특히 일본이

2) 李未醉, 〈中國古代典籍流入日本之影響〉, 《池州師專學報》2003년 2월 제17권 제1기, 90쪽.

3) 위와 같음. 91쪽, 재인용.

4) 위와 같음. 91쪽, 재인용.

정치, 경제, 문화, 학문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활발했던 중국과의 교류는 북송 시기(894년)에 들어서 일본이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고 일부 학승의 유학만을 허락하는 바람에 중국의 민간 상선이 중국의 서적과 기물 등을 싣고 일본으로 건너오는 것 외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⁵⁾ 하지만 2백여 년에 걸친 중국과의 교류로 《신찬자경》의 저술이 진행되어오던平安 시대에는 이미 상당한 한문전적들이 일본에 전래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신찬자경》이라는 대작 찬술의 탄탄한 기초가 되어 주었다.

2) 속자의 유입과 수용양상

앞서 말한 바대로 일본은 4세기 백제로부터 한자를 전해 받은 이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상당한 수량의 한문전적을 보유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한자를 배우고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바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한창 한문전적을 받아들이던 시기가 수당 시기라는 점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자는 예변을 거쳐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해서가 탄생하고 수당 시기에는 이미 해서자형이 정착되고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해서도 서사의 편리와 가독성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해 끊임없이 자형이 변화해왔다. 특히 수나라와 당나라 두 왕조는 모두 전 시대의 정치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고 건국되었다. 정치 문화적 혼란은 정자의 힘을 약화시켜 속자를 포함한 이체자의 성행을 부추긴다. 수가 건국되기 전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정치적 불안이 오래 동안 지속되어 각 지역의 문자가 서로 달라져도 문자 정비 사업에 주력할 여유가 없었다. 이에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문자가 달라지는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그만큼 속자의 사용이 활발했으며, 심지어 그나마 신중하다고 할 수 있는 비각문자에서도 놀랄 만큼 많은 속자가 사용되고 있었다. 서기 518년 수 문제가 다시금 중국을 통일했지만 존속 기간이 짧아 문자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로 말미암아 문자의 혼란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당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 당대 초기에는 속자가 여전히 많이 쓰였다. 하지만 정

5) 위와 같음. 91쪽 참고.

치가 안정되고 통치자가 문자 통일을 중시하자 정자체를 널리 보급하여 속자의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나라 때는 유래 없이 한자의 규범자형을 규정하는 자양학이라는 학문이 성행하게 되었다. 顏師古의 《五經定本》, 《字樣》, 양지본의 《정명요록》, 안원손의 《간록자서》, 구양용의 《經典分毫字樣正字》, 張參의 《五經文字》 등등의 자양학 저서가 쏟아져 나와 정자의 보급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성당, 중당 시기에는 속자 사용량과 범위가 통제되었다. 하지만 자양학의 성행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이미 앞선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으로 탄생한 수많은 속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만당시기부터 당의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자 속자가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오대 십국 시대가 시작되자 문자는 다시 극심한 正俗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시기의 비각이나 전적들 곳곳에서 그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돈황 문헌들의 대부분이 바로 만당과 오대 시대의 자료로, 이 때문에 돈황 문헌은 속자연구의 귀한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의 교류가 잦아 시작되었던 수나라 때나, 가장 활발했던 당나라 때나 속자가 무척 풍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⁶⁾ 따라서 일본은 유학생을 통한 서적 수입이든, 교역을 통한 서적 수입이든 수당 시대의 문자사용 실태의 특징이 그대로 일본으로 전래되어 자연스럽게 중국의 속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당시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아서 전적으로 사람이 필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전적의 수입이 바로 그 당시 그 지역의 한자 서사 습관을 그대로 반영한 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국의 속자가 그토록이나 많이 일본에 전래된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⁷⁾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의 속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일본이 중국 속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양상에 대해 方國平 선생은 〈漢語俗字在日本的傳播—以《日藏古抄李嶠詠物詩注》爲例〉⁸⁾라는 논문에서 계승과 확산, 개조와 창제라는 큰 테두리 안

6)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11년), 24-30쪽 참조.

7) 王曉平의 〈日本漢籍古寫本俗字研究與敦煌俗字研究的一致性〉(《藝術百家》2010년 제1기, 총 제112기) 183쪽에 따르면 당나라 때 저술된 《오경문자》, 《간록자서》, 《경자양》 등의 자양서는 모두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양서가 전래되고 그 결과가 전해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육조시기와 초당 시기에 전해진 속자를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당에서 유학한 학인들은 중국의 문헌을 필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부터 기록되어 있던 자형이나 양식을 그대로 살려 베껴 쓰고 그 결과 중국의 속자가 그대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자 전래 방식은 작게 보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당시 중국의 속자유행과 양국 간의 교류 성행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유학생이 매개가 된 속자의 일본유입은 상당한 수량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체계도 갖추었으리라 보고 있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속자 중에서 쓰기 쉽고 알기 쉬운 글자들은 널리 쓰이게 되었을 것이고 점점 그 쓰임이 확대되어 나중에는 이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속자라는 점도 잊히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정자로 지위가 승격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었다.⁹⁾ 이는 바로 계승과 확산의 관점에서 중국 속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국평은 또 일본이 속자를 개조하고 창제한 원리를 중국 속자의 유형인 필획의 생략, 증획, 편방교체, 자형구조변화, 서사방식의 변화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저본으로 삼았던 《日藏古抄李嶠詠物詩注》에 나타난 속자들을 유형별로 귀납하고 있다.¹⁰⁾ 전적을 필사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필사 과정에서 속도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간화방법으로 한자의 필획을 간소화하고 때로는 부호나 같은 음을 가진 한자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원래의 자형을 개조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초로 새로운 한자를 창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개조와 창제에 의한 속자 수용양상이다.

방국평의 연구를 통해 일본이 어떠한 태도로 중국 속자를 수용하고 사용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何華珍 선생은 2010년 개정된 《상용한자표》 2,136자와 일본규격협회가 제정한 JIS한자 10,040자를 중심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한자에 남아있는 중국 속자와 일본식 이체자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속자가 일본 한자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했다.¹¹⁾ 하화진은 이 연구를 통

8) 方國平, 〈漢語俗字在日本的傳播—以《日藏古抄李嶠詠物詩注》爲例〉, 《漢字文化》2007년 제5기(총 제 79기), 56쪽.

9) 위와 같음. 56~57쪽.

10) 이 논문의 구체적인 속자 귀납 현황은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중국 속자 개조 및 창제의 구체적인 유형 역시 3장의 《신찬자경》 자형 고찰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해 일본 한자에는 대량의 중국 속자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일본 한자의 발전사는 곧 한자변이의 역사이며 또한 속자변천사(日本漢字發展史, 既是漢字變異史, 也是俗字變遷史)”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상용한자에 중국의 역대 문헌과 금석문자에서 기원한 다량의 속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江田船山古墳大刀銘文》(438年)、《隅田八幡鏡銘》(503年)같은 일본의 고대 금석자료에 이미 万、与、卍、乘、事、京、仏、兒、国、國、來、曾、僧、海、器、土、壞、懷、斷、繼、濟、寶、遲、德、惠、曆、業、弓、爲、碎、爾、邇、玠、祢、罕、舍、船、藏、贊、隨、靈、鳴、辺、倫、湏、卯、冂、烟、埠、師、尔、旃、閉、隱 같은 다량의 簡俗字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遠藤好英 선생이 《別體字類》에 근거해 편찬한 《異體字集》에서 수록한 2280개의 속자 중에서 卍、京、仏、光、卒、圖(圖)、国、冂、峯、塩、変、學、飯、愛、榮、栖、疊、繼、惣、閉、隱、隱、霸、靈、駟 등이 육조 혹은 당대의 비각에서 존재하던 별체속자였다.¹²⁾

이러한 금석 자료 외에도 天平 연간의 한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진귀한 자료인 正倉院 文書라던지 平安 초기의 목보 《東大寺訟誦文稿》 등을 통해서 《신찬자경》이 편찬될 때까지의 일본의 한자사용현황을 알아 볼 수 있다. 먼저 정창원 문서에 따르면 天平 연간에 이미 乱、事、京、仏、兒、卒、壞、将、嶋、從、德、斷、弓、玠、禅、稻、聽、舍、船、藏、号、豊(豊)、贊、弁(辨)、錢、隨、難、靈、塩、麦、鼓 같은 한 당대 속자들이 출현했었고 이 한자들은 지금도 일본의 상용한자로서 정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다음으로 《東大寺訟誦文稿》에서는 축도유 선생의 《新字體寸考》에 따르면 이미 平安 초기에 无、玠、尺(釋)、仏、礼、万、弁、师、与、繼、国、冂、问、闻 등의 간속자가 나타났고, 정창원 문서의 乘、聽、德、爲、舍、捨、贈、憎、僧、増、懷、壞、彈、蟬、闡、鄆、玠、輕、從、醉、斷、頼、每、海、隨、咲처럼 漢唐代的 전적에 나타난 속자들이 상당히 많았다.¹³⁾ 하화진의 연구논문은 비록 한정적이거나 《신찬자경》이 편찬되던 평안시기까지의 속자 유행 양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찬

11) 何華珍, 〈俗字在日本的傳播研究〉,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11년 11월 제24권 제6기.

12) 何華珍, 〈俗字在日本的傳播研究〉,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11년 11월 제24권 제6기. 50~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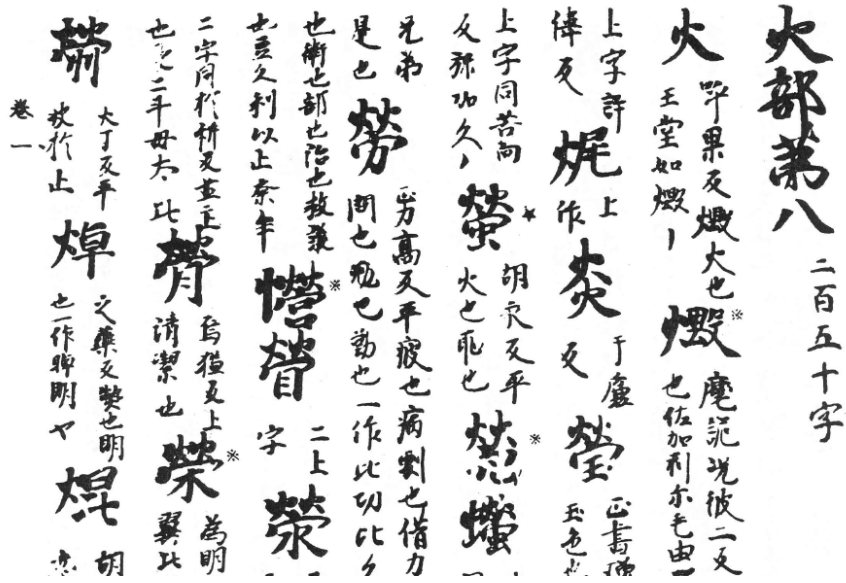
13) 이와 같음. 51쪽.

자경》이 찬술되던 시기에는 적지 않은 속자들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후로도 속자의 사용은 더욱더 심화되어 일본만의 개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속자의 유입은 어느 한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고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한자발전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상용하는 한자에 까지 중국 역대 속자들의 면모가 전승되어 일본 한자 체계가 완성되었다. 결론을 짓자면 《신찬자경》이 찬술되던 시기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200여년의 세월 동안 《현응음의》나 《옥편》, 《절운》 같은 자료가 중국으로부터 전래, 보급되어 자료 면에서도 충분한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적의 수입을 통하여 같이 들어왔던 중국의 속자가 널리 퍼져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한자를 응용하여 만요카나를 발명하고 사용하고 있었을 정도로 한자가 많이 보편화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당시의 문자사용 실태가 《신찬자경》같이 글자와 그 의미, 음운을 다루는 사서의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신찬자경》 자형의 定位

본 소절에서는 《신찬자경》의 자형이 가지는 속성을 규정짓고, 그것의 정위를 세우고자 한다. 위 소절에서는 《신찬자경》 찬술 당시의 일본의 문자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서 언급된 속자 중에서 万、与、京、仏、兎、来、曾、土、壞、懷、斷、繼、德、為、碎、尔、玆、牽、蔵、備、湏、曰、尔、間、隱、尙、牟、畷(圖)、塋、隱、駟、乱、事、将、嶋、從、聽、弁(辨)、麦、无、礼、万、弃、輕 등 상당수가 《신찬자경》에 나타난다. 위에서 든 속자의 예는 사실 각 시대별로 주요한 문자자료 한두 가지와 상용한자와의 대조를 통하여 얻어낸 것으로 각 시대의 진정한 문자 사용 현황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찬자경》에서 자주 나오는 자형 혹은 부건 과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문자 환경이 속자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신찬자경》의 정문을 잘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중국 속자의 자형을 계승한 이체자의 예를 수없이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면모는 아래에 첨부한 《신찬자경》 원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림 1) 신찬자경 火部 원문 이미지



이 점에서 볼 때 《신찬자경》에 나타나는 이체자의 자형은 중국 속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으며, 당시 중국 속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일본의 한자 사용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III. 《신찬자경》 이체자의 유형분석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찬자경》의 이체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중국 속자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찬자경》에 수록된 표제어나 해설문에서 쓰인 한자들 중 중국의 속자들과 자형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한자들, 즉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연구대상 한자들을 직접적으로 중국 속자라고 규정지어야 할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중국의 속자와 자형 상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부르는 명칭은 속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찬자경》은 엄연히 일본인에 의해서 찬술되어

달리 빼침을 생략하여 𠄎 형태로 자형을 간략화 했다. 역대 鬼자의 자형 변천을 살펴보면 𠄎 甲3346, 𠄎 京津2582, 𠄎 燕655, 𠄎 鬼壺, 𠄎 陳貝方簋, 𠄎 梁伯戈, 𠄎 孟鼎, 𠄎 侯馬盟書, 𠄎 侯馬盟書, 𠄎 睡虎秦簡 등과 같다. 위에서 든 자형 예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중 수호지 秦簡의 자형이 직접적으로 속자의 𠄎자와 자형적 연관이 깊고, 鬼壺처럼 머리 부분이 뾰족하게 강조된 금문자형이 정자 鬼자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형은 자형 변천을 거듭하여 소전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머리 부분에 튀어나온 획이 하나 더 첨가되면서 𠄎로 변화하여 해서 정자 자형의 기초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예변과 해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자형이 주된 자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왼 빼침이 빠진 𠄎의 자형은 鬼를 자소로 가지는 𠄎, 𠄎, 𠄎, 𠄎 같은 다른 중국 속자에서도 자주 보인다. 《敦煌俗字研究》는 “𠄎, 軌位反, 𠄎. 亦作𠄎, 𠄎, 𠄎.”로 이 세 글자의 속자관계를 말하고 있다. 본디 鬼는 전문이 隸變을 거치면서 나타난 이체자형으로 《五經文字》나 《龍龕手鏡》에서는 𠄎로 부수를 세웠다¹⁶⁾

𠄎¹⁷⁾과 𠄎¹⁸⁾은 서사할 때 자소의 필획이 너무 많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서로 부딪힐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필획을 생략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간혹 字素 간에 필획을 공유하기도 한다. 𠄎자가 바로 그러하다. 𠄎자의 화의 오른쪽 제일 위의 점은 尙자의 왼쪽 점이 있어야 할 위치에 와서 두 자소 모두 공유하는 필획이 되고 있다.¹⁹⁾ 𠄎

1993년), 931쪽 참고.

16)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635쪽 참고.

17) 《漢語大字典》 편찬위원회, 《漢語大字典》: 「同焮, 《龍龕手鑑·火部》: ‘焮,’ ‘焮’의俗字。」(成都, 漢語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935쪽 참고.

18) 《漢語大字典》 편찬위원회, 《漢語大字典》: 「《說文·火部》: ‘燧, 火也.’ 《玉篇·火部》: ‘燧, 野火也.」(成都, 漢語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939쪽 참고.

19) 이러한 현상에 대해 王立軍은 〈宋代刻版楷書研究〉(北京師範大學 中文科 博士 學位論文, 2000年)에서 어떤 부건의 필획이 다른 부건의 필획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자신은 형체가 줄어들거나 혹은 기타 다른 필획으로 변하는데 이를 讓이라고 하고, 어떤 부건의 필획이 다른 부건 필획의 빈 공간을 채워져 자신의 형체가 연장되거나 缺筆된 위치를 채워주는 것을 就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자 발전 각 역사 단계 중에서 해서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경숙의 《漢字構形要素로 본 敦煌寫本

은 정자 𤇗에서 豕의 오른쪽의 빼침과 파임을 모두 생략하여 자형을 간략화한 예이다. 본래는 豕로 써야 하나 豕를 쓰고 난 후 다시 한 번 더 豕를 쓸 경우 豕 오른쪽의 빼침과 파임, 왼쪽의 세 빼침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서사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형이 대단히 번잡하게 된다. 이 이체자는 바로 이러한 서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豕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필획은 남겨두고 다소 불필요하고 직접적인 불편을 가져오는 필획을 생략해 버렸다.

爿과 爿은 모두 정자 爿의 이체자이다. 爿 자는 火와 爿로 나누어지고, 爿은 다시 卩와 爿으로, 爿은 다시 丩와 세 개의 口, 卩으로 나누어진다. 위의 두 속자는 卩자의 유무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같은 글자이고,²⁰⁾ 두 글자 다 爿에서 口자를 하나씩 생략하였다. 이 경우는 앞에서 들었던 부건을 이루는 필획을 생략하여 그 형태를 간략화 했던 것과는 달리 아예 글자를 이루는 口과 같은 부건 하나를 통째로 생략했으므로 앞선 예와 생략 혹은 간략화의 성질의 조금 다르다.

2. 부건 혹은 필획의 변이

다음으로 고찰해 볼 이체자 유형은 바로 부건 혹은 필획의 형태를 변화시켜 그 자형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부건 혹은 필획 형태의 변화를 통해 자형을 간략하게 하여 서사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예와 부건 혹은 필획의 변이를 통해 정자와는 다른 자형으로 자형이 분화되어 나오는 것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의 이체자가 앞에서 설명한 필획 혹은 부건의 생략과 구분되는 점은 이 유형에서는 필획이나 부건이 완전히 생략되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체 유형은 주로 속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변이 때문에 속자는 자형이 지나치게 다양화되고 판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지만, 속자 역시 사용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으

의 異體字 類型과 淵源, 그리고 그 特徵—敦煌 스타인본 妙法蓮華經을 중심으로》(《漢文學報》 제20집, 2009년), 555쪽에서 재인용.

20) 《漢語大字典》 편찬위원회, 《漢語大字典》: 「同禘, 古代祭名. 《廣韻·藥韻》: “禘, 《說文》: “夏祭也. 或作禘, 禘, 亦從火”. 同“爿”. 《古今韻會舉要·藥韻》: “爿, 亦作爿.” (成都, 漢語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942쪽 참고.

로, 규칙 없는 임의적인 변이는 자체되었으며, 일정한 변이 규칙이 있다. 본 소절에서는 비록 《신찬자경》 火部와 灬部 수록한자라는 한정적인 범위이기 는 하지만 그 변이 규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로는 爇, 爇, 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유형별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속자들 중에는 행서나 초서 자형을 楷書化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신찬자경》의 熊, 燿 등이 이러한 속자의 영향을 받은 이체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간록자서》에서 “熊能: 上通下正”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熊은 能과 灬로 이루어진 熊의 속자이다. 能은 熊나 熊으로 쓸 수 있는데 두 匕자의 자형을 연결시키고 필획을 간소화 하여 형성된 자형이다. 초서가 해서화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체 유형으로, 이러한 자형은 이미 한대의 비각문자에서도 유사한 자형이 나오고 있다.²¹⁾

燿은 燿의 속자이다. 스타인본 묘법연화경 斯0004의 觀자를 보면 灬자를 一로 줄여 쓴 자형을 볼 수 있는데²²⁾, 여러 획이나 부건을 최소한의 획으로 줄여 쓰는 초서의 필사법이 그대로 녹아 있는 이체 자형이다.

어떤 속자들은 필획수를 줄여 서사의 편리를 제고하기 위해 정자 자형의 부건이나 필획을 연결시켜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가 있다. 燿, 燿²³⁾, 燿 등이 이러한 속자의 이체유형을 계승한 이체자이다. 燿는 火와 聶으로 이루어진 “燿”의 이체자이다. 聶의 자형에 대해 《오경문자》 耳부에서 “聶, 女涉反, 兩耳就一耳, 凡字從聶者皆放此. 作聶訛.”라고 기술하여 그 자형의 연원을 밝혔고, 다시 躡, 躡, 囁 등 聶자를 포함한 한자들은 모두 聶로 쓰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²⁴⁾

다음은 부건이나 필획이 모습이 비슷한 다른 형체로 변화하여 자형의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겠다. 煠은 煙의 이체자이고, 燿은 叅의 이체자이다. 두 이체

21)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342쪽 참고.

22) 이경숙, 《漢字構形要素로 본 敦煌寫本の 異體字 類型과 淵源, 그리고 그 特徵—敦煌 스타인본 妙法蓮華經을 중심으로》(《漢文學報》 제20집, 2009년), 555쪽 재인용.

23)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151쪽 참고.

24)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447쪽 참고.

자 모두 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형은 土에 한 획을 더해 만들어진 속자인 土에서 다시 그 자형이 변형된 것이다. 우선 土의 자형에서 세로획이 첫 번째 가로획을 기준으로 점으로 변형되었고, 두 가로획 사이에 있었던 점이 아래 세로획의 옆으로 이동하였다. 土자형은 현대의 비각 문자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돈황 문헌인 《俗務要名林》을 비롯한 중국 속자에서 자주 나타나는 자형이지만²⁵⁾, 거기에 다시 변형을 가한 자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찬자경》은 물론 동시대 혹은 그 후의 일본 문헌의 자형을 공식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형은 중국의 속자의 영향 위에 다시 당시 일본 평안시기의 문자 서사습관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형성된 이체자형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증하는 것이 바로 향후 본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爰과 爰은 兼이라는 자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글자로, 각각 爰과 爰의 이체자이다. 먼저 고문자 자형을 통하여 이체자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소인 兼과 兼의 자형 연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兼의 고문자자형은 兼徐王子鐘, 兼古陶, 兼睡虎秦簡에서 보시다시피 “從又持秝. 兼持二禾, 兼持一禾.”의 형태이다. 張涌泉의 《敦煌文字研究》에 의하면 兼은 본래 從又二禾 회의자였지만 예서 시대에 兼자로 자형이 간략화되었고, 兼같은 변체가 나왔으며, 이를 근간으로 속자 자형 兼이 나왔다.²⁶⁾ 《신찬자경》의 兼자는 중국 속자의 兼자형과 아래 부분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윗부분의 형체가 一로 변형되었다. 즉 《신찬자경》의 兼자는 고문자 자형 兼과 兼의 형체를 해서화한 자형을, 상부는 一과 一로 줄이고, 정자 자형의 兼이 벼 뿌리가 사방으로 퍼진 모습을 형상화한 兼의 하부 자형의 모습을 두 세로획, 삐침, 파임으로 간략하게 줄여버린 데 비해 삐침과 파임 두 필획이 두 방향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人 자형으로 벼의 뿌리 부분이 넓게 퍼져나간 모습을 형상화한 禾자의 하부를 모방하여 고문자 자형의 상형성을 남겨두었다.

爰은 爰의 이체자이다. 다른 부건은 정자와 유사한데 爰의 형체가 爰로 오른쪽 부건의 형체가 爰과 爰 속자인 爰의 아래 부분과 비슷하다.²⁷⁾ 원래 爰의 자형은

25)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103쪽 참고.

26)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49쪽 참고.

쫘과 쫙의 속체 자형인 쫛과 자형적으로 관련이 없었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中의 자형을 매개로 서로 점차 비슷한 형태로 변화하여 燐에서의 모습으로까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燐은 燐의 속자이다.²⁸⁾ 燐의 아래 부분의 가로획의 형체가 ㄴ로 바뀌고 세로 획이 日자를 관통하는 자형 상의 변화로 형성된 이체자형이다.

爐은 爐의 이체자이다. 爐의 부수 火는 윗 부분의 ㄱ의 돌출된 부분이 없어지고, 一과 丿, 七 형체가 약간의 변화를 보인 후 서로 연결되어 𤇀라는 속체 자형이 형성되었다. 《신찬자경》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一를 더 길게 뺀 내려하게 하여 가운데 들어있던 필획을 둘러싸 오른쪽 상단 부분을 아예 막아버리는 자형으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된 火자형은 이것을 부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鑪, 蘆, 臚 등의 이체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²⁹⁾

3. 비슷한 자형으로의 교체

이 유형은 원래의 정자 자형이 그와 비슷하면서 더 간략한 자형으로 교체되어 생겨난 이체자들을 귀납한다. 이 유형이 앞서 설명한 2)부건 혹은 필획의 변이 유형과 다른 차이점은, 이와 같은 이체자 유형의 경우 이체화되기 전의 부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부건 혹은 필획의 변이는 변이 전후의 자형이 뒤섞여 흔적이 남아 있지만 비슷한 자형으로의 교체를 통한 이체자는 일대일의 교체를 통해 그전의 부건이 남아있지 않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이체자들은 熿, 焠, 燐, 燐, 𤇀, 熿, 焠, 焠, 焠, 焠, 焠, 焠, 焠, 焠, 焠, 焠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통해 구체적인 이체자 유형을 알아보자.

熿은 熿의 이체자이다. 이체 요소인 鹿는 鹿의 속자체이다. 이 속체 자형은 鹿의 아랫부분의 比를 비슷한 형체의 ㄷ로 대체하여 형성되었는데, 《字樣》에서 “鹿, 二同”라고 하였고, 《字鑑》에서 “鹿, 俗作鹿.”하였듯이 鹿자의 속체 자형으로 한

27)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174, 175쪽 참고.

28)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367쪽 참고.

29)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451쪽, 456쪽 참고.

대 비각이 이미 출현했다고 하며, 鹿자의 정체 자형을 대신하여 편방으로 사용되었다.³⁰⁾

燔은 燹의 이체자이고, 𤇑는 籊의 이체자이다.³¹⁾ 속자에서는 籊을 𤇑으로 많이 쓰므로 이 두 자형은 정체와 속체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두 이체자 중에서 𤇑은 籊부건 외에도 𤇑의 속자인 𤇑으로 대체되었다. 이 두 이체자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籊는 원래 “從采, 田”로 이루어진 글자였으나, 자형상 米와 비슷하고 米가 더 잘 알려진 부건이므로 采를 대체하게 되었다.

𤇑은 𤇑의 이체자 刀를 力으로 교체하여 형성된 자형이다. 功의 속자인 𤇑, 𤇑의 속자인 𤇑, 劫의 속자인 𤇑처럼 속자에서 刀와 力을 혼용해서 쓰는 서사방식은 이미 상당히 보편적인 이체양상이며, 이러한 혼용현상은 한 나라 때의 비각문자에서도 이미 나타났다.³²⁾

𤇑은 焯의 이체자이다. 冎의 口를 凵로 대체하여 형성된 이체자형이다. 중국 속자에서는 冎의 口를 凵로 바꾸어 써도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대 비각문자에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𤇑, 𤇑, 𤇑 같이 冎을 凵로 쓰는 속자가 유행했고³³⁾, 《신찬자경》에까지 계승되었다.

𤇑과 𤇑은 사실 동일한 글자로 需의 雨를 而로 대체하여 형성된 이체자형이다. 속자에서는 需의 雨자가 비슷한 글자인 而의 영향으로 서로 닮아가다가 결국 而로 대체되어 𤇑로 쓰이는 유사화(類化) 현상이 자주 보인다. 이러한 이체 현상은 한대 비각에서도 이미 나타났다고 한다.³⁴⁾

4. 자형구조 변화

이 이체 유형은 이체자를 이루는 부건들의 위치가 변동되어 형성된 이체자들을 귀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속자에서는 부건들의 위치가 좌우로 변경되거나

30)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667쪽 참고.

31)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45쪽, 365쪽, 412쪽 참고.

32)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89-90쪽 참고.

33)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335쪽 참고.

34)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603쪽 참고.

아래위로 변경되는 등 부건을 조합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³⁵⁾ 이러한 현상은 《신찬자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신찬자경》 화부의 한자들은 주로 灬 자형을 중심으로 기타 부건이 위로 이동하는 상하 구조로의 변화현상이 주를 이룬다.

𤇀은 燬의 이체자이다. 원래 隹자는 隹자의 속자이며, 이러한 속자 전통은 현대 비각에도 이미 나타났다. 隹자는 먼저 隹자가 속자 자형인 隹로 대체되었고, 다음으로 隹의 자형이 분리되어 기존의 火+隹이던 좌우구조가 隹+乃의 상하구조로 바뀌었다.³⁶⁾

隹은 燬의 이체자이다. 원래 隹와 火의 좌우구조였는데, 隹의 隹와 灬 이 분리되고 灬이 중앙으로 가고 隹가 그 위로 올라가는 상하구조로 바뀌었다.

5. 필획 혹은 부건의 증획

필획 혹은 부건이 번체화되는 것은 속자의 전체적인 이체규율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록 속자가 서사의 편리를 위하여 형체를 간략화하는 것이 주된 추세였다고는 하나 한자의 판별과 음과 뜻의 명확성을 위해 다시 번체화 하는 경향도 있었다. 중국 속자가 번체화하는 경우는 비슷하게 생긴 글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잘 쓰이지 않는 편방을 익숙한 편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그 외 서사 혹은 자형의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며, 속체의 편방에 근거해 번체화가 일어나기도 한다.³⁷⁾ 《신찬자경》의 이체자 중에서 속자의 필획 혹은 부건 번체화의 이체유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글자들로는 𤇀, 𤇁, 𤇂, 𤇃, 𤇄, 𤇅, 𤇆, 𤇇, 𤇈, 𤇉, 𤇊, 𤇋, 𤇌, 𤇍, 𤇎, 𤇏, 𤇐, 𤇑, 𤇒, 𤇓, 𤇔, 𤇕, 𤇖, 𤇗, 𤇘, 𤇙, 𤇚, 𤇛, 𤇜, 𤇝, 𤇞, 𤇟, 𤇠, 𤇡, 𤇢, 𤇣, 𤇤, 𤇥, 𤇦, 𤇧, 𤇨, 𤇩, 𤇪, 𤇫, 𤇬, 𤇭, 𤇮, 𤇯, 𤇰, 𤇱, 𤇲, 𤇳, 𤇴, 𤇵, 𤇶, 𤇷, 𤇸, 𤇹, 𤇺, 𤇻, 𤇼, 𤇽, 𤇾, 𤇿 등이 있는데, 𤇀, 𤇁, 𤇂, 𤇃, 𤇄, 𤇅, 𤇆, 𤇇, 𤇈, 𤇉, 𤇊, 𤇋, 𤇌, 𤇍, 𤇎, 𤇏, 𤇐, 𤇑, 𤇒, 𤇓, 𤇔, 𤇕, 𤇖, 𤇗, 𤇘, 𤇙, 𤇚, 𤇛, 𤇜, 𤇝, 𤇞, 𤇟, 𤇠, 𤇡, 𤇢, 𤇣, 𤇤, 𤇥, 𤇦, 𤇧, 𤇨, 𤇩, 𤇪, 𤇫, 𤇬, 𤇭, 𤇮, 𤇯, 𤇰, 𤇱, 𤇲, 𤇳, 𤇴, 𤇵, 𤇶, 𤇷, 𤇸, 𤇹, 𤇺, 𤇻, 𤇼, 𤇽, 𤇾, 𤇿은 灬에 점을 더하여 灬로 증획되었고, 𤇁은 灬위에 冫를 덧붙였고, 𤇡은 灬 옆에 점을 더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은 모두 서사 습관의 반영으로 나타난 유형이다.

35)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商務印書館, 2011년), 101-104쪽 참고

36) 張涌泉, 《敦煌文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년), 607쪽 참고.

37)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商務印書館, 2011년), 84-92쪽 참고

한자는 方形 문자이다. 서예가들은 자형의 균형과 밀도감, 안정과 단정함을 위하여 節筆을 가하여 사람들의 심미안을 만족시키곤 했다. 𠄎는 자칫 짧은 빼침 하나로 텅 비어보일 수 있는 오른쪽 윗 공간을 가득 차 보이게 하기 위해 식필을 가하여 형성된 이체자인 것으로 보인다.

𠄎는 木에 점을 더하여 朮로 자형을 변체화 하였다. 이는 단순한 서사습관에 의한 가필이 아니라 朮과 같은 다른 글자의 자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³⁸⁾

IV. 맺는 말

본 논문은 중국 속자의 이체유형과 《신찬자경》본연의 이체 규율을 고려하여 마련한 다섯 가지 이체 유형별 이체자들이 중국의 속자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 속자와 《신찬자경》의 이체자는 연원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신찬자경》이체자의 자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속자와는 다른 서사방법이 더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점은 바로 《신찬자경》이 단순히 중국 속자와의 비교연구대상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의 문자 서사 실태까지도 파악하여 일본한자와 중국한자의 연결 고리를 이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찬자경》수록 한자의 부건을 모두 분석해 기본 자소와 부건을 추출해 내고 그것의 자형적 특징을 중국의 속자와 비교연구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우선 火부와 灬부라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신찬자경》의 자형을 분석하고 그 이체 유형을 귀납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저술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찬자경》의 기본자소와 부건을 추출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8)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년), 89쪽 참고.

【參考文獻】

- 張涌泉,《敦煌文字研究》,上海,上海教育出版社,1996年.
- 張涌泉,《漢語俗字叢考》,北京,中華書局,2000年.
- 徐中舒 等編,《漢語大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1993年.
- 郭 瑞,《魏晉南北朝石刻文字》,廣州,南方日報出版社,2010年.
- 張涌泉,《漢語俗字研究》,北京,商務印書館,2011年.
-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 研究室 編,《天治本新撰字鏡(增訂本)》,京都,臨川書店,平成11年.
- 김경조,〈漢字문화권 국가의 漢字수용 양태에 관한 비교연구〉;《신라학연구》,1999년.
- 李未醉,〈中國古代典籍流入日本之影響〉;《池州師專學報》제17권 제1기,2003년 2월.
- 王曉平,〈日本漢籍古寫本俗字研究與敦煌俗字研究的一致性〉;《藝術百家》,2010년 제1기, 총 제112기.
- 方國平,〈漢語俗字在日本的傳播—以《日藏古抄李嶠詠物詩注》爲例〉;《漢字文化》2007년 제5기(총 제 79기).
- 何華珍,〈俗字在日本的傳播研究〉;《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제24권 제6기,2011년 11월.
- 이경숙,〈漢字構形要素로 본 敦煌寫本の 異體字 類型과 淵源, 그리고 그 特徵—敦煌 스타인본 妙法蓮華經을 중심으로〉;《漢文學報》제20집,2009년.

【中文提要】

《新撰字鏡》爲一部日本的古辭書，而是彙集當時日本當用漢字的文字資料。當時日本從唐朝收容了莫大的漢文典籍，也派了很多留學生留唐。這些留學生在唐鑽研了儒學和實用學問，也抄了不少經書和佛經等的漢文典籍。衆所皆知隋唐時期俗字頗多，雖然唐朝提倡正楷，仍然不能完全擺脫俗字的影響。通過留學生手抄流入的漢文典籍保留了當時隋唐朝的俗字筆法，日本人民吸收漢文典籍的信息的時候自然而然的學到了中國俗字，而對日本人的漢字使用樣態起到了一定的影響。於是歷代日本漢字富於中國俗字的特點，其影響至今仍是，日本人現在常用漢字裏含著相當多的中國俗字。由此可以推定撰述《新撰字鏡》的平安時期的漢字使用情況更是如此，於是《新撰字鏡》所收入的漢字多承襲於

中國俗字，存在一些相當獨特的異體字。所以本文根據中國俗字的類型歸納《新撰字鏡》火部字和灬部字的異體字，分析其異體類型。通過本文研究可以歸納五項類型。第一，省略筆劃或者部件。第二，部件或筆畫的變異。第三，替換類似字形。第四，字形結構變化。第五，部件或筆劃繁化。

【主題語】

新撰字鏡, 中國俗字, 異體字, 敦煌俗字, 日本漢字

투고일: 2012. 7. 15 / 심사일: 2012. 7. 20~8. 5 / 게재확정일: 2012. 8. 10